



까만 카멜레온

글 · 그림 이은선 / 책고래



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닮은 카멜레온 우리는 모두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

까만 몸을 가진 카멜레온 이야기입니다. 까만 카멜레온은 몸의 색이 변하지 않아요. 숲 속을 뛰어다닐 때도, 꽃들 사이를 거닐 때도 그저 ‘까만색’일 뿐이지요. 친구들은 까만 카멜레온을 두고 ‘왜 변하지 않을까?’ 이상하게 여깁니다. ‘어른이 되면 달라질까?’, ‘조금 더 기다리면 예뻐질 거야’ 저마다 추측을 하지요.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까만 카멜레온은 그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입니다.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,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하지요. ‘난 까만 카멜레온이야. 난 내가 좋아.’ 라고요.

독후 이해 활동

- ㉠ 친구들과 조금 다른 까만 카멜레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? 까만 카멜레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보아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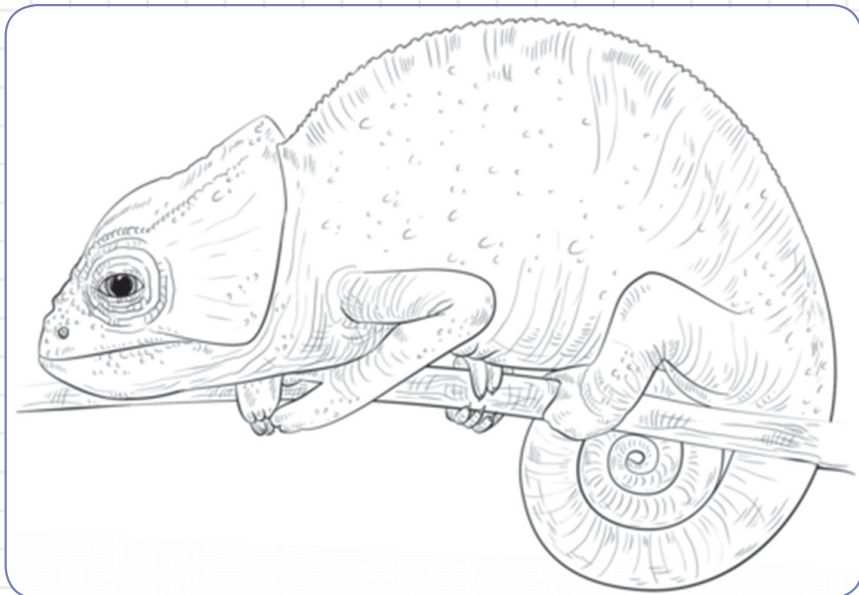
- ❓ 나도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? 나와 형제의 사진을 붙여 비교해 보고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아요.

나	형, 누나, 동생

닮은 점	
다른 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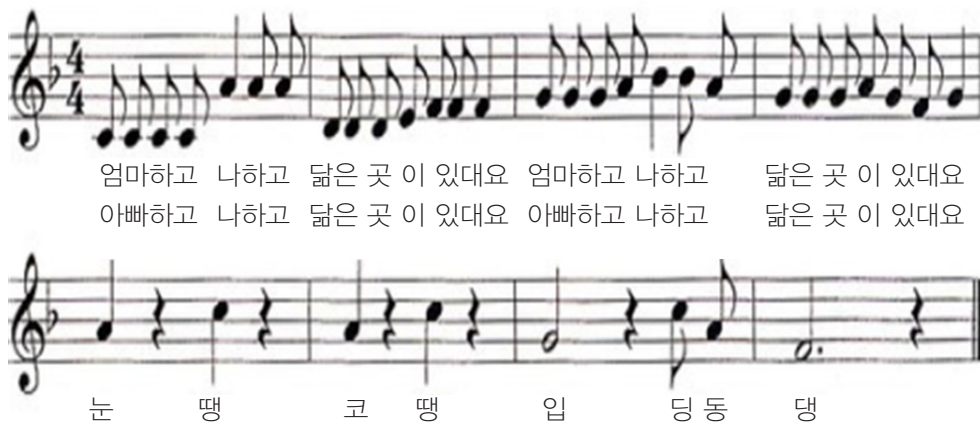
독후 활동 이어가기

- ❓ 조금은 다르면 어때요. 달라도 멋진 걸요. 개구쟁이 카멜레온에게 예쁜 옷을 선물해 줄까요? 색종이를 찢어 붙여도 되고 색연필로 칠해도 멋져요.



Q 동요 '똥은곳이 있대요'를 엄마와 불러보고 가사도 바꿔 불러볼까요.

똥은 곳이 있대요



엄마하고 나하고 똥은 곳 이 있대요 엄마하고 나하고 똥은 곳 이 있대요
아빠하고 나하고 똥은 곳 이 있대요 아빠하고 나하고 똥은 곳 이 있대요

눈 땡 코 땡 입 땡 똥

예) 친구하고 나하고 똥은 곳이 있대요 친구하고 나하고 똥은 곳이 있대요
키 땡! 몸 땡! 엉덩이~~~~~ 땡땡땡 ♪ ♪ ♪